하나금융그룹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VI

Samuel Barber
Adagio for Strings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Wolfgang Amadeu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사단조, 쾨헬번호 550

Wolfgang Amadeus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모차르트
레퀴엠 라단조, 쾨헬번호 626

# 영웅들을 추모하며

지휘 **함신익**

소프라노 **이해원**
메조소프라노 **김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 Memory of the Heroes

**06. 20 Fri 7:30 PM**

LOTTE CONCERT HALL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LOTTE CONCERT HALL yes24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ONGSAN 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HM

##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 이사장
문형주

### 부이사장
안정근

### 감사
김일규

###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 마스터즈 Circle
풍산

### 말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GFS
골프존

###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다진
KNW
박선주

### 모차르트 Circle
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응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고맙습니다.
# 더 잘하겠습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딴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Memory of the Heroes
# 영웅들을 추모하며

Samuel Barber
1910~1981

## Adagio for Strings
현을 위한 아다지오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 Symphony No. 40 in g minor, K. 550
교향곡 제40번 사단조, 쾨헬번호 550

I. Molto allegro ---- 아주 빠르게
II. Andante ---- 편안한 걸음걸이로
III. Menuetto. Allegretto – Trio ---- 미뉴에트. 약간 빠르게 - 트리오
IV. Allegro assai ---- 매우 빠르게

Intermission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 Requiem in d minor, K. 626
레퀴엠 라단조, 쾨헬번호 626

I. INTROITUS ---- 입당송
II. KYRIE ----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III. SEQUENTIA ---- 연속된 노래들
1. Dies irae ---- 진노의 날
2. Tuba mirum ---- 놀라운 나팔소리
3. Rex tremendae ---- 위대한 왕
4. Recordare ---- 기억하여 주소서
5. Confutatis ---- 저주받은 자
6. Lacrimosa ---- 눈물의 날
IV. OFFERTORIUM ---- 두 개의 봉헌송
1. Donmine Jesu Christe ---- 주 예수 그리스도
2. Hostias ---- 제물과 봉헌
V. SANCTUS ---- 거룩하시다
VI. BENEDICTUS ----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
VII. AGNUS DEI ---- 하느님의 어린 양
VIII. COMMUNIO : Lux aeterna ----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내리게 하소서

**소프라노** 이해원 /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정인호 / **인천시립합창단**

#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 | | | | | |
|---|---|---|---|---|---|
| **예술감독** | 함신익 | | | | |
| **바이올린** | 성경주* | Taihi Chin | 박진형 | 강은실 | 김은지 |
| | 김민주 | 박하람 | 선유란 | 오하은 | 이지혜 |
| | 이화진 | 정예린 | 정예은 | 한예진 | |
| **비올라** | 한지윤 | 김용수 | 김효경 | 송수민 | 유시온 |
| | 장윤정 | | | | |
| **첼로** | 최예지 | 권혜림 | 이혜인 | 정혜솔 | |
| **더블베이스** | 고부현 | 강선률 | 김가은 | 김태현 | |
| **플루트** | 김성찬 | | | | |
| **오보에** | 김소정 | 김우영 | | | |
| **클라리넷** | 조종현 | 최윤석 | | | |
| **바순** | 김윤지 | 고경호 | | | |
| **호른** | 조종현 | 주혜준 | | | |
| **트럼펫** | 이진규 | 이혜진 | | | |
| **트럼본** | 김성수 | 김지섭 | 김재원 | | |
| **팀파니** | 황영광 | | | | |
| **크리에이티브 팀** | 신현숙 | 고부현 | 구헌정 | 김소정 | 유소정 |
| | 이건우 | 이수민 | 이창훈 | 최아현 | 최윤석 |

* 악장 ※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 Incheon City Chorale Members

| | | | | |
|---|---|---|---|---|
| **Music Staff** |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윤의중 | | | |
| | **부지휘자** 장민혜 | | | |
| | **반주자** 황소은 최지현 | | | |
| **Office Staff** | **단무장** 최홍석 | | | |
| | **사무** 정민호 채아라 | | | |
| | **악보계** 정승현 | | | |
| **Soprano** | 김순영 수석 | 류효정 제1차석 | 최유림 제2차석 | 조미연 |
| | 백혜숙 | 성보경 | 최명우 | 박은향 |
| | 엄수경 | 유미현 | 조한윤 | 문가현 |
| | 진예진 | 류하람 | | |
| **Alto** | 이상은 수석 | 손수희 제1차석 | 조미영 제2차석 | 박정해 |
| | 인현숙 | 오윤정 | 김영해 | 이수진 |
| | 오희경 | 송지영 | 이효정 | 이주희 |
| | 주선영 | 이혜령 | | |
| **Tenor** | 김복남 수석 | 김양연 제1차석,총무 | | 김종훈 제1차석 |
| | 이이삭 제2차석 | 박진호 | 강병진 | 오제윤 |
| | 김 인 | 유광재 | 이장호 | |
| **Bass** | 김창민 수석 | 양성근 제1차석 | 허남훈 제2차석 | 임병관 제2차석 |
| | 박상길 | 오모세 | 최진욱 | 이양희 |
| | 하용욱 | 이근용 | 김세연 | |

## 이해원 소프라노

-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 성정 음악 콩쿠르 2위,
  이화 경향 음악 콩쿠르 1위,
  중앙 음악 콩쿠르 3위
- '랭스로의 여행', '마술피리' 등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

## 김선정 메조소프라노

- 함부르크 음악대학
-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등
  국내외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및
  전문 연주가 활동

## 이명현 테너

- 함부르크 음악대학
- 독일 노이에슈팀멘 콩쿨 1위,
  칠레 루이 시갈 콩쿨 1위
- 독일 SWR 방송국
  젊은 오페라스타 우승
- 23·24 시즌
  독일 메클렌부르크 주립극장,
  코트부스 주립극장 주역 가수로
  출연

## 정인호 베이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준우승,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5위
- 독일 프랑크푸르트 극장,
  벨기에 리에주 극장,
  프랑스 리옹 극장 등 세계 각지의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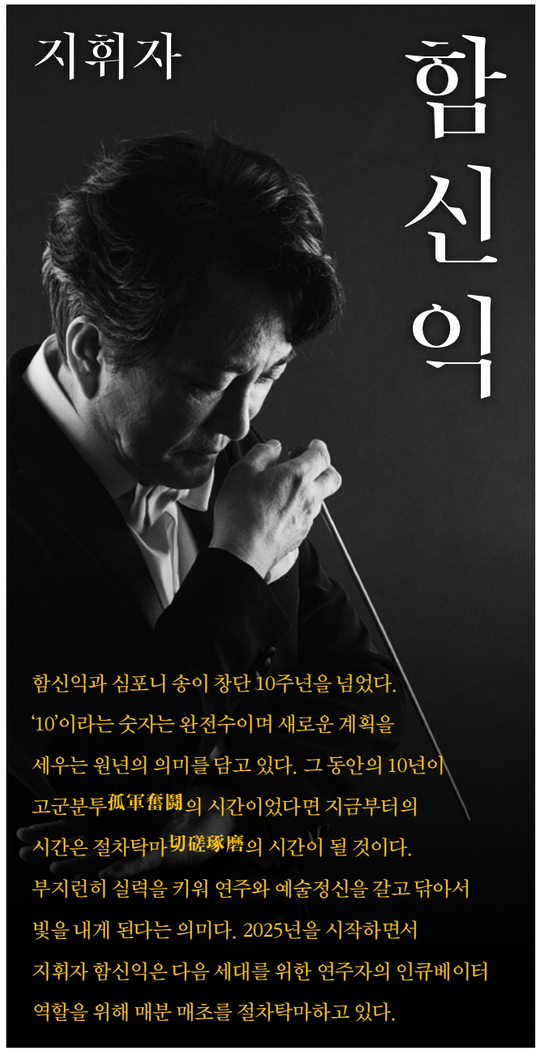
##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1995년 윤학원 전 예술 감독과 함께 재 창단 하며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 컨벤션 등 세계 주요 합창 축제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은 시민들에게 감동있고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제공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인천합창대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의 합창저변 확대와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4년 1월, 윤의중 지휘자가 제8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며 더욱 세계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은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반둥 합창심포지움에 초청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 합창음악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윙'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윙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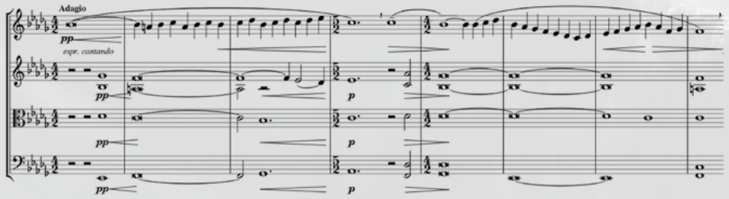
## Samuel Barber

# Adagio for Strings, Op. 11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사무엘 바버(Samuel Barber, 1910-1981)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원래 1936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작곡한 현악 사중주 B단조 Op.11의 제 2악장이다. 당시 바버는 파트너인 작곡가 쟝까를로 메노티(Gian Carlo Menotti, 1911~2007)와 유럽에 머무르며 작곡 활동을 했는데, 이 작품은 버질(Publius Maro Virgil, 70 BC~19 BC)의 시 「농경(農耕)시」(The Georgics)에 감명을 받아 구상되었다. 특히 시에서 "바다 한가운데 멀리서 물결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 이라는 구절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1938년 11월 5일, NBC 교향악단을 지휘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 1867~1957)에 의해 라디오로 초연되었는데,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여파 속에 있었고 유럽은 전운이 감도는 중이었다. 초연 이후 이 곡은 미국의 뉴딜 시대와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야의 비극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차츰 미국의 비공식 애도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장례식, 존 F. 케네디 추모식 등 굵직한 역사적 애도 행사에서 자주 연주되었고, 9·11 테러 이후 BBC 프롬스(영국 BBC에서 매년 여름 개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 축제. 그 마지막 밤(Last Night of the Proms)은 축제의 클라이맥스로 매우 상징적인 공연임)의 마지막 밤 행사에서 지휘자 슬랫킨(Leonard Slatkin, 1944~)이 이 곡을 선택해서 연주했다. 오늘날까지도 아다지오는 영화《플래툰》등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에 사용되며, 차분한 애수와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다지오는 전통적 다악장 구성을 벗어난 단일 악장 곡으로, 곡 전체를 하나의 아치(arch) 형태로 구성하여 높아지는 정점(climax)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룬다. 초연 직후 평론가 올린 다운스(Olin Downes, 1886~1955)는 "멜로디와 형식의 아치(arch of melody and form)"가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낮은 현악기군에서 시작해 점차 바이올린으로, 다시 비올라·첼로로 이어지는 한 개의 긴 선율이 산맥처럼 솟았다 사그러드는 곡 형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 1바이올린에 의한 주요 주제와 단순 화성으로 채색된 오케스트레이션]**

곡은 B♭단조라는 어두운 조성에 머무르며,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된다. 도입부에서 바이올린이 한 음을 홀로 길게 울린 뒤 비올라와 첼로로 이어지면서 점차 음량을 높여가고, 곧 이어 바흐식 대위법적 화성 진행과 리듬적 반복을 통해 긴장감을 쌓아간다. 중반부에 절정을 이룬 뒤, 약간의 침묵을 거쳐 마지막 연주부가 나타나면서 곡을 마무리 짓는다. 지휘자 슬랫킨은 이 과정을 "처음에는 바이올린의 단 하나의 매우 긴 선율로 시작하여… 매우 강한 절정에 도달한 뒤 마치 '아멘'이라고 말하듯 두 개의 화음으로 끝난다."라고 묘사했다. 주요 동기로는 곡 시작부의 내림 6도 진행과 호흡 같은 짧은 정지음(staccato)을 들 수 있으며, 후반부에는 이 주제가 변형되어 재현되고 곡의 감정적 고조를 책임진다. 전반적으로 단조에서 단조로 마무리되는 아치 형식이지만, Adagio for Strings는 "가장 단순한 화음이 가장 의미심장해진다"는 다운스의 말처럼 절정 부분에서 화성적·선율적으로 가장 단순한 음형을 사용하여 정점의 순수한 울림을 강조한다.
학계에서는 이 곡의 종교적·낭만적 성격에 대한 해석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NPR(National Public Radio,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등에서는 이 곡이 당초 비통한 분위기의 "애도의 찬가"로 탄생했지만, 이후 오히려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전이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악보에 없는 숨구멍(pause)이 효과적으로 삽입되며 진행되는 과정이 장르적으로는 '공간미술'처럼 청중에게 여운을 주는 점에서, 전통적 구조 분석 외에도 심리적 해석이 강조되곤 한다. 사실 작곡가 자신이 의도한 곡의 의미는 버질의 「농경시」에서 따온 파도(물결) 비유 즉, "바다 한가운데 멀리서 물결이 일어나 산을 이루며 으르렁거린다"는 시적 묘사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하여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필자도 때때로 경험하는 것으로 한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작품은 작곡가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새로운 창조물로써 청자들에게 해석되고 인지되기도 한다.

Samuel Barber(1910~1981)'s Adagio for String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conic and emotionally resonant works of the 20th century. Originally written in 1936 as the second movement of his String Quartet in B minor, Op. 11, the piece was later arranged for string orchestra and premiered in this form by Arturo Toscanini and the NBC Symphony Orchestra on November 5, 1938, in a live radio broadcast. Its poignant lyricism and quiet intensity struck a powerful chord with audiences, particularly in the shadow of the Great Depression and on the eve of World War II.

The inspiration for the Adagio is said to have come, in part, from Virgil's Georgics, specifically a line describing the swelling of waves in the open sea—an image that finds musical expression in the arch-like shape of the piece. A single, sustained melodic line gradually rises in emotional intensity before receding into silence, framed by a texture of slow, unfolding harmonies. The work's climax is understated yet devastating, concluding with two soft chords that feel almost like a whispered "Amen."

The structure of the Adagio reflects a kind of organic symmetry: one long breath that rises and falls. Its harmonic language is simple yet richly expressive, often evoking a sense of suspended time. As critic Olin Downes described, Barber created an "arch of melody and form," drawing the listener into a deeply introspective world.

Over the decades, Adagio for Strings has become America's unofficial anthem of mourning. It has been featured at the funerals of Presidents Franklin D. Roosevelt and John F. Kennedy, memorial services for the victims of 9/11, and in films such as Platoon. Yet beyond its associations with grief, the music also suggests a universal sense of searching, solace, and transcendence. Barber himself later arranged the piece as a choral work, Agnus Dei (1967), further emphasizing its spiritual character. Today, Adagio for Strings endures not only as a powerful lament but also as a profound testament to the emotional depth and quiet dignity of Barber's voice in American music.



아다지오는 20세기 미국 음악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애도의 음악이라는 종교적 기원과 대중적 활용이 결합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애도 미사나 추모식은 물론 극장·영화·TV 음악으로까지 널리 수용되었고, 플래툰 같은 영화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되면서 전쟁과 상실의 상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연주 관행에서는 가급적 작곡 당시 편성인 현악 합주(보통 현악 1·2부,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연주하되, 해방구 성격의 곡이므로 현대적 해석에서는 약간 느린 템포와 풍부한 음색으로 음악적 여운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곡은 1967년에 합창용으로 바버가 직접 편곡한 아뉴스 데이(Agnus Dei)가 있으며, 이 버전도 종종 아다지오 원곡과 번갈아가며 연주된다. 오늘 연주의 후반부에서 선보일 레퀴엠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 Wolfgang Amadeus Mozart

# Symphony No. 40 in g minor, K. 550

**모차르트** **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쾨헬번호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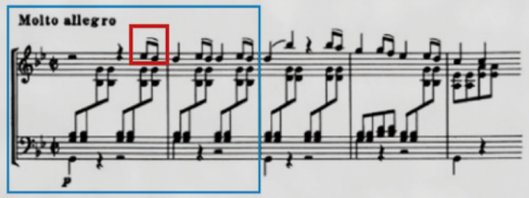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1788년 여름 약 6주에 걸쳐 교향곡 39번, 40번, 41번을 썼는데, 제 40번은 이 중 두 번째로 완성된 작품이다. 이는 모차르트 생애 중 유일한 장조가 아닌 2개 교향곡 중 하나이며, 제 25번 g단조(17세 때 작곡) 이후 두 번째로 심각한 단조 작품이다. 이 시기는 모차르트 개인에게 어두운 시기이기도 했다. 비엔나 관객들은 그의 연주에 예전만큼 열광하지 않았고, 재정난이 심화되었으며, 유아기 딸 테레지아가 죽음을 맞는 등 고통스러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교향곡의 불안한 정서와 조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음악사적으로는 독일·오스트리아에서 감정의 격정(Sturm und Drang)을 표현하는 예술적 흐름이 유행하던 때이기도 하다. 필자는 프리메이슨의 정신을 대변하는 휴머니스트 영웅에 관한 39번(E♭장조) 교향곡과 신적 또는 음악적 완전체로서의 영웅에 관한 41번(C장조) 교향곡 사이를 이어주는 교두보로 제 40번 교향곡을 해석한다. 모차르트의 이 최후의 세 개의 교향곡은 하나의 집합체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40번이 의도적으로 서두 없이 시작하고 마지막 악장의 규모가 41번만큼 웅장하지 않은 점이 중간 작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g단조의 선택은 단순히 슬픈 분위기를 위함이라기 보다는 E♭장조와 C장조와 관계조로 두 교향곡을 완벽하게 이어주기 위함이며 단조의 불안정성이 곡 전체를 아울러 배치된 "의도된" 음악적, 구조적 모호성(ambiguity: 이는 후일 인상주의 음악가들의 표본이 된다. 다른 두 교향곡에서는 배제되었다.)과 더불어 교향곡 시리즈의 교두보로서 구조적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본다. 곡은 흐른 두 개, 목관(플루트 1, 오보에 2, 바순 2, 1791년 개정판에는 클라리넷 2)과 현악기로 편성된다. 1788년 오리지널 버전에는 클라리넷이 없다. 이후 1791년 빈 음악회에서는 클라리넷이 포함된 개정판이 연주되었으며 슈타들러 형제(Anton Stadler and Nepomuk Stadler)가 클라리넷 연주자로 참여했다. 두 버전 모두 모차르트의 친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작곡가 본인이 직접 개정한 것으로 추측한다.

Wolfgang Amadeus Mozart(1756~1791)'s Symphony No. 40 in G minor stands as one of his most emotionally charged and harmonically daring works. Completed in July 1788, just three years before his death, it is one of only two symphonies Mozart wrote in a minor key—and the only one in G minor. Often nicknamed the "Great" G minor Symphony, it reveals a side of Mozart far removed from the lightness and elegance often associated with his name. Here, we hear urgency, restlessness, and a searching intensity.

The work opens with one of the most famous motifs in classical music: a nervous, pulsing figure in the violas that propels the entire first movement. There's no grand introduction—just a direct plunge into stormy passion and subtle tension. This dramatic energy is sustained throughout the symphony's four movements, each displaying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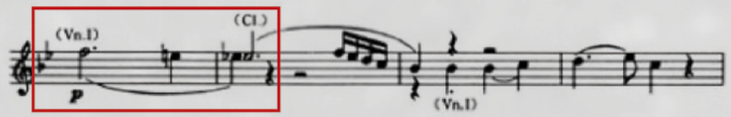
## I. Molto Allegro

첫 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도입 없이 바로 제 1주제가 낮은 현악기의 리듬 반주 위에서 바이올린 선율로 제시된다. 이중(double auftakt) 기법을 사용하여 흥미로운 시작을 보이는데 모차르트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첫마디에 시작되는 못갖춘 선율동기(Eb-D)와 두 마디의 못 갖춘 주제 동기(1,2마디)를 설치해 두었다. 이로써 전체 주제의 강박은 세 번째 마디(베이스 음 참조)부터 시작된다. 청자는 이 의도된 두 개의 장치로부터 모호하지만 강렬한 도입부를 경험하게 된다.




**[1악장 제 1주제, 이중 auftakt 구조]**

이 선율은 특징적인 '한숨 동기'(하행하는 첫 두음 Eb, D)가 반복되며 시작되고, 곧 이어 두 번째 주제에서는 현악기와 목관이 교대로 부드러운 선율을 주고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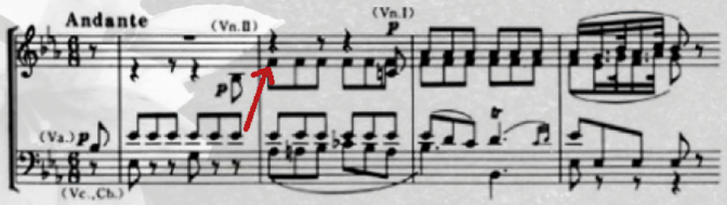



**[1악장 제 2주제]**

주제 동기(붉은 박스)는 제 1주제의 선율 동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명확한 조성의 변화(중간부에서는 같은 g단조를 고수한다.)는 없지만, 각 주제가 교차·발전되면서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팽팽히 유지된다. 명칭 그대로 '매우 빠른' Allegro 템포에서 여리게 시작해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포르테 이상의 강한 동적 변화가 누적된다. 모차르트 특유의 세련된 대위법이 발휘되어, 선율과 반주가 복합적인 대화처럼 얽혀 있으며, 전체적으로 휘몰아치는 듯한 격렬함을 느끼게 한다.

## II. Andante

두 번째 악장은 g단조의 서브도미난트이자 병행조인 Bb장조의 6도(Eb장조)로 전조하며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6/8박자로 완급이 완화되어, 첫 악장에서 느껴진 격렬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요하고 우아한 색채가 드러난다. 첫 주제는 잔잔한 음악성이 강조된 멜로디이며, 이어지는 곡 전체가 일종의 변주 풍으로 진행된다. 단순하게 6번 반복되는 첫 Eb음 이후 F음의 등장(Eb->F)은 1악장 한숨동기(Eb->D)의 전위형태이다.




**[2악장 주요 주제]**

"조용한 달빛 아래 정경처럼" 평온함을 띠며, 고전적 변주 형식으로 각 부분마다 장식과 선율 변화가 놓여 있다. 이 악장에서 모차르트는 완전히 장조로 전환함으로써 1악장의 어두운 정서와 강한 대비를 이룬다.

## III. Menuetto. Allegretto – Trio

3악장 미뉴에트는 다시 g단조로 돌아와 원래 곡의 긴장감을 부분적으로 되돌린다. 가벼운 알레

masterful balance between structural clarity and expressive depth.

The second movement, an Andante in E-flat major, offers a lyrical yet unsettled respite, full of sighing phrases and unexpected harmonic turns.

The third movement Menuetto is bold and aggressive, more a dark, stomping dance than a courtly interlude. Even the trio section feels shadowed by the symphony's overarching m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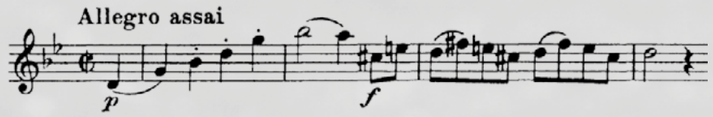
The final movement is a whirlwind of driving rhythms and stormy themes, culminating in a powerful conclusion that leaves no easy resolution. Though Mozart never wrote down why he composed this symphony, it seems to offer a glimpse into an inner world of turmoil and reflection, composed at a time when he faced financial strain and declining health. Despite these circumstances, Mozart's Symphony No. 40 remains a marvel of elegance within intensity. Its combination of drama and grace has inspired generations of composers, including Beethoven and Schubert, and it continues to speak with a raw, human voice that feels as immediate today as it did in 1788.



그레토 박자 속에서도 악센트와 리듬 강조를 통해 강한 주제를 끌어내며, 전형적인 3부 미뉴에트 구성에 따라 트리오는 Bb장조로 전조하여 밝고 온화한 멜로디를 들려준다. "어둠과 빛이 어우러진" 대조로 미뉴에트 부분은 엄격하고 긴장된 반면, 트리오는 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정서를 보인다. 이후 미뉴에트를 반복하면 전체적으로 대비 효과가 극대화된다. 미뉴에트 주제는 다음 악장의 주요 주제로 탈바꿈한다.

## IV. Finale. Allegro assai

최종 4악장 Allegro assai는 급박하고 거친 정서로 귀결된다. 소나타 형식의 빠른 악장으로, g단조 톤으로 시작하여 전 악장과 유사한 격정미를 이어가지만 보다 복잡해진 작법을 보인다.




**[4악장 제 1주제]**

특히 발전부로 넘어갈 때 g음을 제한 모든 음을 반음계적으로 화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략된 g음이 오히려 강조되는 놀라운 기법이다. 또한 발전부 특유의 성질 즉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가 서로 다른 선율(악기군별 분열된 동기 및 주제)을 동시에 복잡하게 이끌다가, 이를 다시 정교하게 종합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박진감 넘친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네 군데 선율 모두 긴장감을 유지한 채 역동적으로 융합되며 끝으로 치닫는다.

## Wolfgang Amadeus Mozart

# Requiem in d minor, K. 626

모차르트 레퀴엠 라단조, 쾨헬번호 626

레퀴엠은 진혼곡, 즉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곡이란 뜻이다. 'Requiem'은 라틴어로 '안식'을 뜻한다. 가톨릭 미사는 엄격하게 치러진다. 교회의 예배순서나 성당에서의 미사와 같이 레퀴엠에서는 곡의 역할에 따른 이름, 순서 등을 형식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를 전례문(典禮文)이라 한다. 전례문에는 고유문(Proporium, 미사가 행해지는 날과 목적에 따라 고유하게 쓰이는 예문)과 그와 대조되는 통상문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고유문에는 특정 미사의 성격이 스며들어가 있고 통상문은 형식적, 구조적 전통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순서와 내용은 입당송(Introitus) - 키리에(연민의 찬가) - 승계송(Graduale) - 연송(Tractus) - 부속가(Dies Irae, 진노의 날) - 봉헌송(Offertorium) - 상투스(Sanctus, 감사의 찬가) - 아뉴스 데이(Agnus Dei, 하나님의 어린 양) - 영성체송(Communio)로 이루어지며 이상의 예문들 가운데 키리에, 상투스, 아뉴스 데이 등은 보통의 미사에서도 쓰이는 통상문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고유문이다. 서양 역사상 다양한 레퀴엠이 작곡되었지만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가 작곡한 가장 훌륭한 종교음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해서 레퀴엠하면 모차르트의 그것이 떠오를 만큼 후세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사후에 완성된 유일한 대작으로, 작곡자 자신이 1791년 말까지 집필한 부분과, 제자 프란츠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 1766~1803)가 죽은 모차르트를 대신해 완성한 부분이 결합된 형태이다. 원래 이 곡은 오스트리아 백작인 프란츠 폰 발제그-슈투파흐(Franz von Walsegg-Stuppach, 1763~1827)의 아내 1주기 추모를 위한 익명 의뢰로 시작되었는데, 백작은 자신의 작곡으로 속여 발표하려 했다. 모차르트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의문의 사자로부터 의뢰 사실을 듣고, 마술피리와 티토 왕의 자비 두 오페라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1791년 12월 5일 모차르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곡은

Mozart's Requiem is in mystery, myth, and poignancy—not only because of its profound musical language, but because it was the composer's final, unfinished work. Commissioned anonymously in July 1791 by a messenger on behalf of Count Franz von Walsegg(who intended to pass it off as his own composition), the Requiem was left incomplete at Mozart's death on December 5, 1791.

Despite its unfinished state, the Requiem stands as one of the most emotionally stirring and spiritually resonant works in all of Western music. Mozart composed much of the Introit, Kyrie, and parts of the Dies irae sequence before his death. The remainder was later completed—most significantly by Franz Xaver Süssmayr, a student and close associate—who followed Mozart's sketches and style to finish the

미완성으로 남았고, 남은 미완성 악보와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자인 쥐스마이어가 Introitus부터 Agnus Dei까지를 완성했다. 이후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는 사후 수익을 위해 쥐스마이어에게 남은 악장을 마저 끝내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합창 마지막의 Agnus Dei와 현존(Communio) 부분 역시 모차르트의 원안 없이 완성되었다.

## I. Introitus (입당송)

일반적으로 레퀴엠 미사는 오전 시간대에 행해졌지만 전례와 상관없는 연주회 레퀴엠 작품은 저녁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어두운 성당으로 집례자와 사제가 입장하는 모습을 바셋혼(Basset horn, 클라리넷과의 홑리드(single reed) 악기로 클라리넷보다 음역대가 다소 넓다)과 바순(Bassoon)의 등장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인트로이투스(Introitus)와 키리에(Kyrie) 부분은 엄숙한 푸가적 형식으로 진행된다. 도입부(Requiem aeternam…)는 합창과 관현악의 장중한 조화로 시작되며, 관악기가 짧은 동기를 반복하면서 곡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어지는 Kyrie에서는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4중창이 회향 형식으로 "Kyrie eleison"을 부르며 간청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는 d단조의 강렬한 화성 속에 중세 미사곡 특유의 경건함이 깃들어 있다.

[ Choir ]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et lux perpetia luceat eis. 영원한 빛을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Soprano Solo ]
Te decet hymnus, Deus, in Sion. 시온에서 찬미함이 마땅하오니
et tibi reddetur votum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내 서원 바쳐지리이다.

[ Choir ]
Exaudi orationem meam,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ad te omnis caro veniet.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오리이다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et lux perpetua luceat eis.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II. Kyrie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2곡 키리에(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앞, 뒤 곡을 연결시키는 음악적 이음새 역할을 하며 첫 부분부터 장대한 이중 푸가 합창이 전개된다.

[ Choir ]
Kyrie elei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Christe eleison.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Kyrie elei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III. Sequentia (연속된 노래들)

시퀀티아(Sequentia)는 교회 레퀴엠 전례의 핵심 부분으로, 운명의 날(Dies irae)의 공포에서 시작해 자비를 호소하는 내용이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각 악절이 합창과 솔로, 오케스트라가 교차하며 긴장감 있게 이어지다가 '눈물의 날'(Lacrimosa) 부분에서는 바로크 시대 레퀴엠 전통의 격렬한 표현이 극대화된다. 특히 마지막 Pie Jesu(자비로운 예수님)에서는 소프라노 독창이 등장하며 곡 전체의 절정을 부드러운 안도감으로 마무리한다. 모차르트 레퀴엠에서는 Pie Jesu가 생략되어 있다.

### 1. Dies irae (진노의 날)

[ Choir ]
ies irae, dies illa 진노의 날
Solvet saeclum in favilla, 그 날은 세상을 재로 만드리라
Teste David cum Sibylla 다윗과 시빌라가 증언하리라.
Quantus tremor est futurus 심판의 때가 이르리니
Quando judex est venturus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으리라!
Cuncta stricte discussurus 모든 것이 엄히 심판될 것이다!

격정적인 가사와 강력한 음악적 제스쳐를 통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과 신에 대한 경외감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Tuba mirum (놀라운 나팔소리)

트롬본의 연주로 아름답게 시작되는 선율에 베이스가 응답하며, 두 파트는 서로 대화하듯 시작된다. 이후 테너와 알토, 소프라노 솔로가 추가되고 합창이 최후의 대답을 펼친다.

[ Bass Solo ]
Tuba mirum spragens sonum 거대한 나팔소리가
Per sepulcra regionum 세계 만국의 무덤까지 울려 퍼져
Coget omnes ante thronum 사람들을 한데 모아 황금빛 왕좌 앞에 세우리라

[ Tenor Solo ]
Mors stupebit et natura 주의 심판 때 대답하리
Cum resurget creatura 조물들이 부활할 때 죽었던
Judicanti responsura. 만물의 혼이 깨어나리
Liber scriptus profetetur 모든 선악 기록한 책
In quo totum continetur 만민 앞에 펼쳐놓고
Unde mundus judicetur. 세상 심판 하시리라

[ Alto Solo ]
Jedex ergo cum sedebit 심판관이 좌정할 때 숨은 죄악 탄로되어
Quidquid latet apparebit, 벌 없는 죄인 없으리라

[ Soprano Solo ]
Nil inultum remanebit. 성인들도 불안커늘 미진한 이 몸 어찌하리오
Quid sum miser tunc dicturus 무슨 변명 청해보리오?

[ Choir ]
Quem patronum rogaturus, 무슨 변명 청해보리오
Cum vix jusutus securus? 무슨 변명, 무슨 변명 청해보리오?

### 3. Rex tremendae (위대한 왕)

부점리듬과 강렬한 합창으로 시작되는 "Rex tremendae"는 왕의 위엄을 드러낸다. 이후 "salva me" 즉 나를 구원해달라는 대목에서는 애절한 분위기로 반전하게 된다.

[ Choir ]
Rex tremendae majestatis, 위엄의 왕이여
Qui salvandos salvas gratis,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은총으로 구하시네
Salva, me, fons pietatis. 나도 구원하소서

### 4. Recordare (기억하여 주소서)

앞선 곡 말미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기억해주소서. 심판 날에 죄를 용서해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진다.

[ Soprano, Alto, Tenor, and Bass Solos ]
Recodare, Jesu pie, 자비로우신 예수여
Quod sum causa tuae viae, 주의 강생 기리시어
Ne me perdas illa die. 그날 나를 멸하지 마소서

work at the request of Mozart's widow, Constanze. From the opening bars of the Introitus, with its solemn chorale and hushed string writing, the Requiem plunges listeners into a landscape of grief and transcendence. The fiery Dies irae, with its cascading choral fury, gives voice to judgment and terror, while movements like the Lacrimosa are suffused with aching beauty and humility. Throughout the mass, Mozart combines operatic drama with sacred solemnity, fusing Baroque counterpoint with Classical elegance. The Requiem is not just a meditation on death—it is a deeply human plea for mercy, hope, and peace. Whether or not Mozart sensed his own end while composing it, the music speaks powerfully to mortality, faith, and the eternal. That its final notes were penned by another only adds to the sense that this masterpiece belongs not only to Mozart's legacy, but to all who have ever pondered life's mysteries.

### I. Introitus

Requiem aeternam:
Eternal rest give unto them, O Lord,
and let perpetual light shine upon them.
A hymn, O God, becometh Thee in Zion;
and a vow shall be paid to Thee
in Jerusalem: hear my prayer;
all flesh shall come to Thee.
Eternal rest give unto them, O Lord,
and let perpetual light shine upon them.

### II. Kyrie

Kyrie eleison:
Lord, have mercy on us.
Christ, have mercy on us.
Lord, have mercy on us.

### III. Sequentia

**1. Dies irae:**
Day of wrath, day of anger
will dissolve the world in ashes,
as foretold by David and the Sibyl.
Great trembling there will be
when the Judge descends from heaven
to examine all things closely!

**2. Tuba mirum:**
The trumpet will send its wondrous
sound throughout earth's sepulchres
and gather all before the throne.
Death and nature will be astounded,
when all creation rises again,
to answer the judgement.
A book will be brought forth, in which all
will be written,
by which the world will be judged.
When the judge takes his place, what is
hidden will be revealed,
nothing will remain unavenged.
What shall a wretch like me say?
Who shall intercede for me,
when the just ones need mercy?

**3. Rex tremendae:**
King of tremendous majesty,
who freely saves those worthy ones,
save me, source of mercy.

**4. Recordare:**
Remember, kind Jesus, my salvation
caused your suffering;
do not forsake me on that day.
Faint and weary you have sought me,
redeemed me, suffering on the cross;
may such great effort not be in vain.
Righteous judge of vengeance,
grant me the gift of absolution before
the day of retribution.
I moan as one who is guilty:
owning my shame with a red face;
suppliant before you, Lord.
You, who absolved Mary, and listened to
the thief,
give me hope also.
My prayers are unworthy, but,
good Lord, have mercy, and rescue me
from eternal fire.
Provide me a place among the sheep,
and separate me from the goats,
guiding me to Your right hand.

Quaerens me sedisti lassus,
Redemisti crucem passus,
tantus labor non sit cassus.
Juste jedex ultionis
Donum fac remissionis
ante diem rationis.
Ingemisco tamquam reus,
Culpa rebet vultus meus,
Supplicanti parce, Deus.
Qui Mariam absolvisti
Et latronem exaudisti,
Mihi quoque spem dedisti.
Preces meae non sunt dignae,
Sed tu tonus fac benigne,
Ne perenni cremer igne.
Inter oves locum praesta,
Ey ab haedis me sequestra,
Statuens in parte dextra.

나를 찾느라 지치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하신 주여
당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공의의 심판관이여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으로 탄식하오니
얼굴이 붉어지나이다
회개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내게도 희망을 주소서
내 기도가 합당치 않으나
당신은 선하시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영원한 불에 태워지지 않게 하소서
양 무리 속에 나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염소 무리에서 나를 떠나게 하소서
당신의 오른편에 나를 세우소서

### 5. Confutatis (저주받은 자)

남성 합창이 "사악한 자들을 깨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심판하실 때..."로 곡을 시작할 때 현악부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음악으로 형상화한다. 여기에 여성 합창이 단순한 반주와 함께 구원을 바라는 노래를 부른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상반된 형태를 나타내지만 다시 전체 합창이 하나로 모인다. 이것은 "Oro supplex et acclinis(엎드려 원합니다)"라는 새로운 합일점을 이루면서 노래한다. 정-반-합의 구조를 보인다.

[ Choir ]

Confutatis maledictis
Flammis acribus addictis,
Voca me cum benedictis.
Oro supplex et acclinis
Cor contrinum quasi cinis,
Gere curam mei finis.

저주받은 자들이
불속에 던져질 때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나를 부르소서
나는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재와 같이 부서졌으니
나의 마지막을 굽어 살피소서

### 6. Lacrimosa (눈물의 날)

모차르트는 8마디에서 작곡을 중단했으며, 이후 제자 쥐스마이어가 나머지를 완성했다. 이 짧은 8마디 안에 눈물이 하늘로 흘러올라가는 음악적 동기와 합창의 주요선율과 화성이 충분히 담겨 있다. 악장의 끝에 등장하는 '레퀴엠 주제'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인상적이다. 모차르트는 이 장대한 세쿠엔치아의 마지막을 거대한 푸가에 의한 "아멘"으로 구상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 Choir ]

Lacrimosa dies illa.
Qua resurget et favilla
Judicantus homo reus.
Huic ergo parce, Deus,
Pie Jesu Domine,
Dona eis requiem,
Amen.

눈물의 그날이 오면
심판 받을 죄인들이
티끌 속에서 일어나리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로운 예수여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5. Confutatis:**
When the accused are confounded,
and doomed to flames of woe,
call me among the blessed.

I kneel with submissive heart,
my contrition is like ashes,
help me in my final condition.

**6. Lacrimosa:**
That day of tears and mourning,
when from the ashes shall arise, all
humanity to be judged.
Spare us by your mercy, Lord, gentle
Lord Jesus,
grant them eternal rest.
Amen.



## IV. Offertorium (두 개의 봉헌송)

오퍼토리움(Offertorium)은 헌금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특별찬양으로 서원의 제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웅장한 관현악과 함께 시작된다. 먼저 Domine Jesu 부분에서는 2대의 트럼펫과 팀파니가 강력하게 울려퍼지며 중장조(C Major)로 전환되어 희생적인 구조를 강조한다. 이어진 Hostias 부분에서는 한층 더 온화한 멜로디로 전환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명으로"라는 구절이 이전 주제와 대위적으로 연결된다. 이 악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구속적 상징성을 음악적으로 그려낸다.

### 1. Donmine Jesu Christe (주 예수 그리스도)

[ Choir ]

Domine Jesu Christe, rex gloriae,
libera animas omnium fidelium
defunctorum
de peonis inferni
et de profundo lacu.
Libera eas de ore leonis,
ne absorbeat eas tartarus,
ne cadant in obscurum;
sed signifer sanctus Michael
repraesentet eas in lucem sanc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ius.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지옥의 형벌과
깊은 수렁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소서
지옥이 그들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성 미카엘의 인도에 따라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빛의 세계로
그들을 이끄소서

### 2. Hostias (제물과 봉헌)

1번곡이 상당히 복잡한 다성부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이 곡은 단순한 호모포니 양식으로 전개된다. 전체적으로 유려하고 부드러운 흐름이 이어지지만, 곡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라는 구절이 다시금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후 곡은 조용하고 담담하게 마무리된다

[ Choir ]

Hostias et preces tibi, Domine,
laudis offerimus,
tu suscipe pro animabus illis,
quarum hodie memoriam facimus:
fac eas, Domine, de morte
transire ad vi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mi eius.

주여, 찬양과 기도의 제물을 드리니 오늘
우리가 추도하는 영혼을 위해 받아주소서
주여,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신자들의
영혼을 구하시어 그들을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V. Sanctus (거룩하시다) – VI. Benedictus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

「거룩하시다」에서는 혼성 합창이 겹세음을 이루며 엄숙한 도입부를 형성하고, 곧이어 관현악의 폭발적인 호산나 후렴이 나온다.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에서는 약간의 간주 후 테너와 베이스 이중창이 등장하여 더 따뜻한 색조로 전환한다. 쥐스마이어는 1784년 모차르트가 제자에게 써 준 "바르바라 플로이어를 위한 연습 노트" 작곡입문 첫머리의 선율을 사용하였다. 두 악장이 음악적으로 바로 연결되며, 이어서 축제적인 분위기의 두 번째 Hosanna가 이어진다. 거룩하시다(Sanctus)와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Benedictus) 부분은 대체로 경쾌하고 화려한 대위법적 합창이다.

**IV. Offertorium**

**1.Domine Jesu:**
Lord Jesus Christ, King of glory,
Liberate the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from the pains of hell
and from the bottomless pit.
Deliver them from the lion's mouth,
lest hell swallow them up
lest they fall into darkness.

Let the standard-bearer, holy Michael,
bring them into holy light.
Which was promised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2.Hostias:**
Sacrifices and prayers of praise, Lord,
we offer to You.
Receive them in behalf of those souls
we commemorate today. And let them,
Lord,
pass from death to life,
which was promised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V. Sanctus**

Sanctus:
Holy, holy, holy,
Lord God of Hosts.
Heaven and earth are full of Thy glory.
Hosanna in the highest.

**VI. Benedictus**

Benedictus:
Blessed is He who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 Choir ]
Sanctus, sanctus, sanctus — 거룩, 거룩, 거룩
Dominus Deus Sabaoth! — 만군의 주
Pleni sunt coeli et terra gloria tua. —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Hosanna in excelsis! — 높은 곳에서 호산나!

[ Alto Solo ]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 받으소서
Hosanna in excelsis! — 높은 곳에서 호산나!

## VII. Agnus Dei (하나님의 어린 양) – VIII. Communio: Lux Aeterna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내리게 하소서)

[ Choir ]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짐을 지신이여
dona eis requiem. —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 주께 대한 찬양이 시온에서 드려지고,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 예루살렘에서 서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Lux aeterna luceat eis, Domine, —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cum sanctis tuis in aeternum, — 주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들과 함께 영원히
quia pius es. — 당신을 자비로우시니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 영원한 안식을 저들에게 주소서
et lux perpetua luceat eis, — 주님 끝없는 빛을 저들에게 비추소서
cum sanctis tuis in aeternum, — 당신의 거룩하신 이들과 함께 영원히
quia pius es. — 당신은 자비로우시니

Communio에서 수미쌍관적 테마적 순환이 완결된다. Agnus Dei는 합창이 조용히 "평화를 주십시오"를 기도하듯 반복하고, 마지막의 Lux aeterna에서는 Introitus 첫 행과 같은 라틴어 가사가 변주되어 등장한다. 즉, 곡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Requiem aeternam…" 선율로 닫히며 일종의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는 가톨릭 미사 전례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성찬식이 거행될 때 신자들은 제단 쪽으로 나아가는데 입당송에서 사제들의 행진과 비슷하다. 여기서 밝은 D장조('Lux aeterna' 문구)로 전환되는 대목은 애도의 엄숙함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환기시킨다.

전통적으로는 쥐스마이어가 완성한 악보('레퀴엠 전통판')를 사용하지만, 20세기 말 이후에는 미국 음악학자 로버트 D. 레빈(Robert D. Levin, 1947~)의 보완판을 채택하는 연주도 늘었다. 레빈 판은 특히 Lacrimosa의 끝에 모차르트의 스케치라고 인정된 아멘(Amen) 푸가를 추가하여 마지막을 개선했는데, 이는 현대 음악학계에서 널리 지지를 받는다. 다만 이 아멘 푸가의 진짜 의도 즉 이것이 모차르트 레퀴엠의 일부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악보 일부(모차르트가 쓴 종결부 'Quam olim Abrahae' 지시문)가 1958년 세계박람회에서 절도당하기도 하여 해석상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차르트 레퀴엠은 그 종교적 엄숙함과 동시에 마지막 작품이라는 상징성으로 낭만적 감동을 자아내는 대표적 레퀴엠이다. 사후에 완성된 곡이라는 비극적 사연과 조화로운 합창음악으로서의 예술성이 결합되어, 클래식 레퍼토리 중에서도 특히 널리 사랑받는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의 삽입과 수많은 음반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추모·종교 행사는 물론 음악회에서도 꾸준히 연주된다. 현대에는 고전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클래식 악기를 쓰거나, 쥐스마이어 이외의 논문적 완성판(예: 브루노 발터(Bruno Walter)나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s)판을 선호하는 연주자도 있지만, 곡 전개와 음정 지시 등을 엄격히 따르는 전통 연주도 여전히 많다.

**글. 박희정 (작곡가, 지휘자)**

### VII. Agnus Dei

Agnus Dei: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them rest.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them everlasting rest.

### VIII. Communio

Lux aeterna:
Let eternal light shine on them, Lord,
as with Your saints in eternity, because You are merciful.
Grant them eternal rest, Lord,
and let perpetual light shine on them,
as with Your saints in eternity, because You are merciful.

**함신익과 심포니 송 2025 마스터즈 시리즈 V**
**2025. 05. 15**

##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라벨 탄생 150주년〉 관객 리뷰

"모차르트와 쇼스타코비치의 곡이 동시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보기 드문데, 여러 음악 사조를 접할 수 있는 무대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단원분들의 각 솔로를 들을 수 있었던 히나스테라의 '교향적 변주곡'
또한 너무 아름다웠고 귀감이 되는 연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휘자님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설해 주셨던 것이
연주를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가까운 자리에서 보며
같이 호흡하며 연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는 연주였습니다."

"라벨과 쇼스타코비치를 기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쿠프랭의 무덤'으로 산뜻하지만 강렬하게 시작해서
쇼스타코비치 곡의 훌륭한 피아노와 트럼펫까지..
네 곡이 연주되었으나 전혀 지루하지 않게 배치되고 연주되어
프로그램도 탄탄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치유한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pcoming Concerts
## (썸머 콘서트)

**06.28**
**서울시 초청 더 윙**
DMC 래미안 e편한세상 1단지 중앙로 - 오후 5시
무료입장

**07.26**
**서대문구 초청 더 윙**
서대문 홍광교회 - 오후 5시
무료 입장

**08.14**
**독립문 광복절 전야제**
독립문 광장 - 오후 7시
무료 입장

**08.15**
**종로구 광복절 기념 콘서트**
오후 7시
무료 입장

WE TSE와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VII

Ludwig van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번호 37

Anton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브루크너
교향곡 제1번 다단조

**09. 14 Sun**

**5:0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베토벤과 브루크너

지휘 함신익

# Beethoven & Bruckner

피아노 김규연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예술의전당 interpark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ONGSAN 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HM

###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 Mozart Flute Concerto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SYMPHONY SONG SHINIK HA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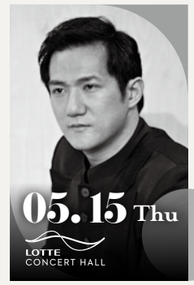
##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 2025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 영웅들을 추모하며

**Barber**
Adagio for String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이해원,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Kyutai Shim

##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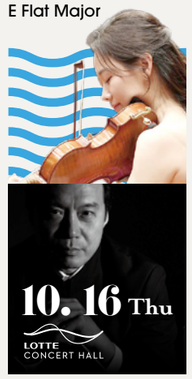
## Sibelius Special

객원 지휘 | 장 구오용

**Sibelius**
Valse triste, op. 44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한국 초연

###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할인혜택** ※VIP석은 100석 한정

| | | | | |
|---|---|---|---|---|
| 6월 30일까지 구매시 10% | VIP석 | 4회 | ~~480,000원~~ → | 432,000원 |
| | R석 | 4회 | ~~400,000원~~ → | 360,000원 |
| | S석 | 4회 | ~~280,000원~~ → | 252,000원 |
| | A석 | 4회 | ~~200,000원~~ → | 180,000원 |
|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 A석 | 4회 | ~~200,000원~~ → | 150,000원 |
| | B석 | 4회 | ~~120,000원~~ → | 100,000원 |

**티켓 구매 요령**

① **전화 구매** 02-549-0046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 구분 | 연회비 | 예우 및 혜택 |
|---|---|---|
| **마에스트로** | 3억 원 이상 | · 기업연주* 6회 제공<br>· 2025년 시즌패스<br>- R석 40매 증정 |
| **마스터즈** | 1억 원 이상 | · 기업연주* 2회 제공<br>· 2025년 시즌패스<br>- R석 30매 증정 |
| **말러** | 5,000만 원 이상 | · 기업연주* 1회 제공<br>· 2025년 시즌패스<br>- R석 20매 증정 |
| **브람스** | 3,000만 원 이상 |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br>· 2025년 시즌패스<br>- R석 12매 증정 |
| **브루크너** | 2,000만 원 이상 |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br>· 2025년 시즌패스<br>- R석 8매 증정 |
| **슈베르트** | 1,000만 원 이상 |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br>· 2025년 시즌패스<br>- R석 4매 증정 |
| **베토벤** | 500만 원 이상 | · 2025년 시즌패스<br>- R석 2매 증정 |
| **쇼팽** | 300만 원 이상 | · 2025년 시즌패스<br>- S석 2매 증정 |
| **모차르트** | 100만 원 이상 | · 2025년 시즌패스 4회<br>- A석 2매 증정 |
| **하이든** | 1만 원 이상 | |

**공통 예우**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공통 예우**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SYMPHONY SONG SHINIK HAHM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5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 2025 'Melodia' 개인 후원약정서

SYMPHONY SONG
SHINIK HAHM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Mobile** | | |
| | **E-mail** | | |
| **약정금액** |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 |
| | ☐ 원 | | |
| |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 | |
| **일시납** | 일시납 원 | |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자동이체 은행정보** | **은행명** | **예금주 명** | |
| | **계좌번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 **개인** 또는 ☐ **법인**

**약정금액**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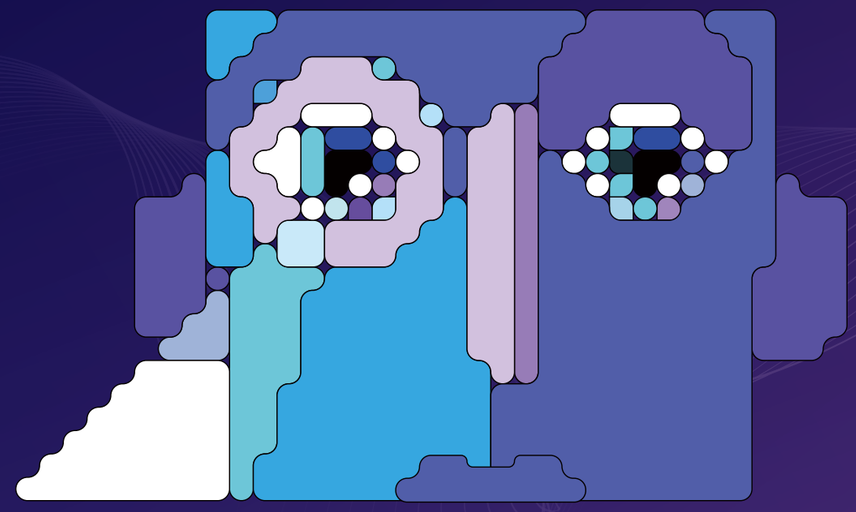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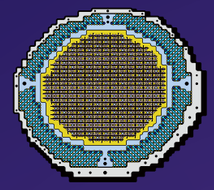
| | |
|---|---|
| **후원계좌**<br>**하나은행**<br>**206-910024-73904**<br>**심포니송** |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br>**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br>※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3 uni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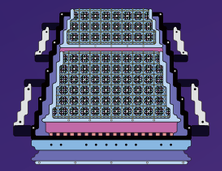
Optimized InterconneXion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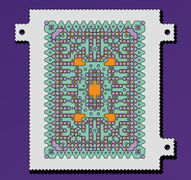
Probe Card



Interface Board



Test Socket



TSE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 FA & BIO분야 ···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톨리눔독소제재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DSK
Display Secondary Battery Knowledge
㈜ 디에스케이
www.dsk.co.kr

protox
보툴리눔독소제재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ORO
Medical laser equipment and
Industrial laser application systems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 · 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GOLFZON NEWDIN GROUP

GOLFZON NEWDIN HOLDINGS · GOLFZON · GOLFZON COMMERCE · GOLFZON COUNTY · GOLFZON GDR ACADEMY · GOLFZON DECA · GOLFZON ZOIMARU · NEWDIN CONTENTS
GOLFZON MEDIA · GOLFZON CM · GOLFZON AMERICA · GOLFZON CHINA · GOLFZON VIETNAM · GOLFZON JAPAN · GOLFZON LEADBETTER · NEWDIN PASTEL

HANDIUM

# PANAMA GEISHA
##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 입니다.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 콜드브루 커피원액 **예가체프** |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다크 블렌드** |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디카페인**

| | |
|---|---|
| 온라인 스토어 | www.handium.co.kr |
| 고객센터 |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
| 주요 판매처 |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

HANDMADE FOR YOUR PREMIUM

##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GOOD Software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